

제13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및 제135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

논산시의회는 제13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를 6월 10일~6월 17일(8일간) 개최하여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수정 가결하였으며, 「2011년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의 건」을 심의 의결하고, 「원불교 삼동원 공동묘지 반대 주민투표 청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6월 20일~6월 27일(8일간) 제135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청취하고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와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201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운주 광산개발 반대 13만 시민 의지 천명

완주군에 운주 광산개발 반대 건의서 전달

논산시의회는 지난 5월 2일 전북도청에 접수된 운주면 장선리 광산개발 인허가와 관련 5월 26일 전북도청, 완주군청, 완주군의회를 방문하여 운주 광산개발에 따른 환경피해와 논산 시민의 생존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13만 논산시민의 강력한 의지를 담은 반대 건의서를 전달하였다.



그 결과 6월 8일 완주군의회로부터 완주군에서도 광산개발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회신을 통보받았으며, 논산시의회는 논산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운주 광산개발 사업이 승인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천명했다.